



가축의 계열화 생산

양계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의 진폭이 커서 산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안정화 방안은 여러가지 처방이 있겠으나 외국처럼 계열화 생산유통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적 여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누가 선뜻 참여하기를 꺼려 왔다.

양축가들의 의견은 어느 재벌기업이 계열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축협이 자금, 조직, 인력면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축협이 계열주체가 되어주기를 바래 왔다. 그러나 축협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이익은 없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불확실한 새로운 사업에 선뜻 손을 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축산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조항중 신설된 계열화에 대한 조항을 소개한다.

제 13조의 3 (가축의 系列化 생산) :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촉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계약에 의한 생산을 하게 할수 있다.

1. 축산업협동조합
2. 제13조의 2 제1항 단서의(8월호 참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3.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지금이야말로 농가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 요청되는 때이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축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깊이 개입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법이 있는데도 산업이 불안정한 것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열이란 어떤 공통점에서 서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제통이나 조직으로 현재처럼 아무런 관계없이 소외된 상태의 반대가 integration 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농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까지 정하는 축협이나 기업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안정되어 갈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을 보면 계열화 생산까지만 있고 그 이후의 유통문제는 빠져 있어 어떤 물량이 부족한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해보지만 설마 그럴리아 하고 기우로 돌린다.

보리와 사료

지난해 캐나다산 보리가 값이 싸서 사료품목으로 수입하려고 사료업체에서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 겪었던 보리고개가 연상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수입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9월부터는 국내산 보리가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된다. 이번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되게 된다.

배합사료에 보리 1%를 사용하면 가격도 1%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30만톤을 1년간 사용하게 되니까 연간 배합사료 생산량 6백만톤으로 볼때 약 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곡류다변화와 대두박, 옥수수 등 국제 사료원료가격의 하락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양축가들이 걱정하는 품질문제는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사료공장들의 기술수준이 원료다변화 정책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번 원료다변화시책 추진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좀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느 분야보다도 영양사료분야를 공부한 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이 보리 사용을 기해서 더욱 진밀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농수산부가 이번에는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



되는 보리의 양이 많지만 앞으로는 주정 등 타 분야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국산옥수수와 함께 국산보리도 사용량이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국제시세로 공급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현재 쇠고기, 분유제품 및 난백 등 제란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86년 부터는 더욱 많은 축산물에 수입되겠기에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이다.

국내의 많은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료수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가격과 함께 곡류별 수급비율도 고려하여야 한다. 연중 옥수수와 타곡물과의 사용 비율에 역매어 보리, 수수, 호밀 일변도로 공급될 경우 배합사료 품질은 다시한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